

〈兩都賦〉의 體制와 表現技巧

沈成鎬 *

〈目次〉

I. 緒言	III. 〈兩都賦〉의 表現技巧
II. 〈兩都賦〉의 體制	1. 比喻
1. 分章	2. 誇張
2. 句型	3. 借代
	IV. 結語 〈參考文獻〉

I. 緒言

〈文選〉 39類의 다양한 文體 가운데 賦가 제일 먼저 수록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만큼 중요하고 문학적 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닐까. “내용이 깊은 생각에서 나왔고 의미가 아름다운 문장에 귀결되는”¹⁾ 能文이 〈문선〉의 편선기준이라고 할 때, 賦야말로 漢字로 표현할 수 있는 능문중의 능문으로 인식되었음이 분명하다. 그 〈문선〉의 부 가운데 제일 앞에 수록된 작품이 班固의 〈兩都賦〉이다. 즉 〈양도부〉는 〈문선〉의 제일 먼저 나

* 안동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1) 《文選序》: 「事出於沈思, 義歸乎翰藻」

오는 작품이다. 그러니까 <문선>에서 대표적인 능문의 문체가 부이고, 부의 대표적인 작품이 <양도부>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부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그 중요성에 비해 활발한 편이 아니며, 더구나 부 작품 하나하나에 대한 고찰을 살펴보면 적막감마저 든다. 이렇게 된 이유를 짐작해 보면, 부는 그 화려함에 비해 도무지 내용이 없어서, ‘無病呻吟’하고 공허한 작품들의 전형이기 때문에 연구 가치가 별로 없다고 인식되는 데서 오는 결과라고 본다. 기실 부는 읽는 데 힘만 들었지 가슴이 뭉클한 감동이나 짜릿한 흥미를 유발시킬만한 이야기 구조 및 독자에게 주는 작가의 메시지 등을 거의 느낄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아무래도 부의 문학성이나 문학적 가치는 이런 작품의 내용적 요소를 접어둔 채 형식적 요소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문선>의 편자가 부를 그토록 높이 평가한 것도 부의 형식적 아름다움, 漢字라는 독특한 표의문자로 추구할 수 있는 부의 다양한 표현력, 형식미로 발전하는 부의 순수 문학적 가능성 등을 크게 샀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본고에서는 <문선>의 첫머리에 수록된 <兩都賦>를 선정하여 거기에 나타난 형식미와 다양한 표현력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것은 부의 대표 작품이라 할 수 있는 <양도부>의 형식미와 표현력을 검토함으로써 부의 문학성을 구체적인 면에서 확인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작업은 부의 문학성이 주로 형식적인 면에 있는 만큼 부 작품 자체를 연구하는 한 방법으로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II. <兩都賦>의 體制

체제란 형식적 내용적으로 나뉘어진 요소 또는 그 요소를 구분짓는 원리를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집합(작품)을 구성하는 크고 작은 틀 또는 그 조직 원리를 일컫는다. 반고가 「詩人の 부는 아름다우면서도 그것으로써 법도가 있고, 辭人の 부는 아름다우면서도 그것으로써 지나치다」²⁾라고 했을

2) <漢書·藝文志·詩賦略>: 「詩人之賦麗以則, 辭人之賦麗以淫」

때, '시인의 부'와 '사인의 부'는 부 전체를 나눈 요소이며, '법도가 있다'와 '지나치다'는 부 전체를 나누는 원리(기준)로써 모두 체제가 될 수 있다. 또한 <漢書·藝文志·詩賦略>에서 부를 屈原의 부, 陸賈의 부, 荀卿의 부, 雜賦 등 네 가지로 나누기도 했다. 이처럼 체제는 시각에 따라 구성하는 요소와 원리가 각기 다를 수도 있으므로 다양하다. 부의 개별 작품에서 체제를 이루는 요소는 篇幅, 構篇(章法), 素材, 句法, 字句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양도부>의 체제 가운데 특징적으로 파악되는 요소를 검토하겠다.

1. 分章

운문이든 산문이든 한 편의 글에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달하기 위해서 일정한 글의 배치 형식을 가지게 마련이다. 그저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적어 나간다면, 그것은 雜錄이지 문학 작품이라 할 수 없다. 작가라면 글의 처음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전개하여 어떻게 끝맺고 그들 상호간에는 어떻게 긴밀히 연결시킬 것인지 고려할 것이다. 그래서 논문에는 서론·본론·결론이 있고, 소설에는 발단·전개·위기(갈등)·절정·결말이 있으며, 시에는 起·承·轉·結이 있고, 詞에는 起·換·結 3段이 있으며, 曲에는 起·中·結 3停이 있다. <楚辭>와 漢賦에서는 序·本文·結(亂辭)의 구분이 있다. 序는 글의 앞머리에서 글을 쓰게 된 동기나 全篇의 요지를 서술하는 부분인데, 起序·首·序章·序曲 등으로 불린다. 本文은 序와 亂辭 중간에 있으며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부 서술하는 부분인데, 正文·中部·中 등으로 불린다. 亂辭는 本文의 뒤 곧 글의 제일 끝에 있으며 전체적인 내용을 총결하는 부분인데, 亂曰·亂·結章·終曲·尾 등으로 불린다. 여기서는 <양도부>에서 이와 같은 예술 기법을 다루려고 하며 그것을 '章法'이라고 命名하였다. 그러니까 賦의 체제를 나누는 개념 가운데 일차적이며 가장 큰 틀이 章法이다.

漢賦는 세 부분의 유무에 따라 序·本文·結 세 부분을 모두 갖춘 형식,

序는 없고 本文·結을 갖춘 형식, 結은 없고 序·本文을 갖춘 형식, 序·結 모두 없고 本文만 갖춘 형식 등 여러 가지 分章 形式이 나타난다. 여러 가지 형식 가운데 <양도부>는 어디에 속하는가? <양도부>의 分章을 살펴보면 특이하다. <문선>에는 <양도부>의 표제 아래 序·西都賦·東都賦 등 세 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序를 보면, 그 篇幅이 다른 漢賦와 비교할 때 훨씬 길뿐만 아니라 내용도 대부분 賦의 기원, 부의 전통 및 계승, 부의 사회적 작용 등 부 전체에 대한 일반론이다. <양도부>의 창작동기를 직접적으로 밝힌 것은 다음과 같이 끝부분에 간단히 기술되어 있다.

長安의 고로들은 모두 원망하고 그리워하는 상념을 품고 지금 임금(漢 和帝)께서 옛 도읍을 살피고 돌아봐 주시기를 기원하여 長安의 옛 문물제도를 성대히 칭송하고 東都 洛陽을 비루하게 여기는 의론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兩都賦>를 지어 여러 사람이 현란하게 된 장안의 상황을 상세히 서술하고 지금 낙양의 문물제도를 늘어놓아 판단케 하고자 한다.

(西土耆老, 咸懷怨思, 冀上之瞻顧, 而盛稱長安舊制, 有陋雒邑之議. 故臣作<兩都賦>, 以極衆人之所眩曜, 折以今之法度.)

이것은 전체 序의 편폭이나 내용에 비하면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毛詩·周南·關雎>에 <毛詩> 전체의 <大序>와 <關雎>편의 <小序>가 섞여있는 현상과 흡사하다. 처음부터 「以備制度」까지 편폭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부 일반에 대해 논술하는 부분이 <毛詩大序>에 해당하고, 위의 인용문이 <모시대서>와 섞여있는 <관저>편의 <소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³⁾

<문선>의 체제에 따라 <문선> 판본의 서를 <양도부> 전체의 서로 간주한다면 本文에 해당하는 것은 西都賦와 東都賦 두 편이 된다. 그러나

3) 范曄의 <後漢書·班彪列傳> 班固條에도 <양도부>가 실려 있는데, 거기에는 序 부분이 없고 西都賦와 東都賦라는 표제를 따로 붙이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의 서는 처음에는 <양도부>에 붙어있지 않았는데, <문선>의 편자가 부의 첫 항목에 <양도부>를 수록하면서 부에 대한 반고의 다른 의론과 위의 인용문을 합하여 序로 삼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漢賦 가운데 본문이 두 편인 것은 없다. 더구나 西都賦와 東都賦는 형식상 각각 자체로 독립된 편이 될 수 있다. 西都賦의 첫 부분 즉 「有西都賓問於東都主人曰」에서 「賓曰:唯唯」까지 散文 부분은 西都賦를 끌어내기 위한 序 구실을 실제로 하고있고, 또 東都賦의 첫 부분 즉 「東都主人喟然而歎曰」에서 「以變子之惑志」까지도 일반적인 漢賦의 序 형식과 마찬가지로 散文이면서 問答 형식으로 본문을 이끄는 序 구실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문선>에서 <양도부>를 두 편으로 간주했다.⁴⁾ 이것은 <양도부>를 모방한 張衡의 <二京賦>가 <西京賦>와 <東京賦> 두 편으로 나뉘어지는 상황과 같다. 그러면서도 <문선>의 체제는 또 다른 서 밑에 본문으로 편입된 것이다.

<양도부>의 끝 부분 즉 「主人之辭未終」에서 「請終身而誦之」까지는 산문 형식으로 東都主人의 논리에 西都賓이 완전히 설복당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바로 「其詩曰」 아래 다섯 편의 시로 끝을 맺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전체 편 의 結의 역할을 하고 있다. 結은 <초사>의 「亂曰」에서 후세에 訊·系·歌·頌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하는데 「詩曰」 이하는 완전히 전체 結의 구실을 한다.

다음 단계로 내용에 따라 각각 分節할 수 있다. 이것은 분장의 긴밀성을 좀더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함이다. 서도부와 동도부의 내용은 각각 도읍, 궁전, 사냥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묘사로 크게 나눌 수 있지만 좀더 세분하면 서도부는 11절, 동도부는 10절로 각각 분절된다.⁵⁾ 이들을 분장과 더불어 정리하면 아래 도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文選> 第一卷 賦甲 京都上에 「班孟堅兩都賦二首」라고 되어있음.

5) 田兆民, <歷代名賦譯釋>, 黑龍江人民出版社, 哈爾濱, 1995.6: pp.246-301 참조.

序	제1절	或曰:賦者 …… 炳焉與三代同風	賦의 기원과 전통의 계승	
	제2절	且夫道有夷隆 …… 折以今之法度. 其詞曰	賦의 사회적 작용과 作賦의 접적 동기	
西 都 賦	本	序 제1절	有西都賓問於東都主人 曰 …… 賓曰:唯唯	東都主人과 西都賓의 대 화
		제2절	漢之西都 …… 寔惟作京	長安의 지리적 조건과 도읍된 유래 설명
		제3절	於是歸秦嶺 …… 隆上都而觀萬國也	서도의 건축규모, 인구 조밀과 경제 번영
		제4절	封畿之內 …… 至于三萬里	서도의 환경, 사방의 물 산, 수륙교통
		제5절	其宮室也 …… 惟所息宴	서도 궁실의 규모와구 성, 각종 시설 상황
		제6절	後宮則有掖庭椒房 …… 蓋以百數	후궁의 건축 장식과 호 화로운 생활
		제7절	左右庭中 …… 各有典司	조정의 政務와 百官의 정황
		제8절	周廡千列 …… 非吾人之所寧	建章宮의 배치와 神明 臺 및 그 주위상황
		제9절	爾乃盛娛游之壯觀 …… 禽獸殄夷	上林苑에서의 성대한사 냥 장면
		제10절	於是天子乃登屬玉之館 …… 各得其所	사냥후의 축하잔치와후 궁 비빈들의 유람
	結	제11절	若臣者 …… 故不能徧舉也	西都賓의 결어
東 都 賦	本	序 제1절	東都主人喟然而歎曰 …… 以變子之惑志	서도민의 보수관념에대 한 동도주인의 비판
		제2절	往者 …… 蹈一聖之險易云爾哉	王莽의 역사적 과실과 光武帝의 공적
		제3절	且夫建武之元 …… 而帝王之道備矣	광무제의 도읍 건설과 예악제도의 정비
		제4절	至乎永平之際 …… 誼合乎靈囿	明帝 때 禮敎의 정비와 낙양 궁전의 수리
		제5절	若乃順時節而蒐狩 …… 懷百靈	사냥터에서의 성대한장 면
		제6절	觀明堂 …… 百寮遂退	천자의 仁政과 四夷의 복종, 연회 상황
		제7절	於是聖上 …… 盛哉乎斯世	천자의 重農과 節儉및 백성들의 태평성세
		제8절	今論者但知 …… 而不知王者之無外也	진취적인 관점에서 낙 양에 도읍한 조건
	結	제9절	主人之辭未終 …… 請終身而誦之. 其詩曰	동도주인과 서도민의대 화
結	제10절	其詩曰 …… 끝	明堂詩·辟雍詩·靈臺 詩·寶鼎詩·白雉詩	

위와 같이 도표로 정리해 놓고보면 <양도부>는 장절의 구성이 매우 긴밀한 것을 알 수 있다. 서도부와 동도부 모두 그 자체로 각각 서·본문·결의 3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양도부> 전체로 볼 때는 새로운 序 아래에 서도부·동도부 전체가 본문 역할을 하고 다섯 수의 시가 전체 結 역할을 담당하는 특이하면서도 긴밀한 체제이다.

2. 句型

漢賦의 일반적인 경향과 마찬가지로 <양도부>에서도 序 부분은 어느 것이나 산문체로 되어 있고, 結 부분도 전체 <양도부>로 볼 때의 結 부분인 다섯 수의 시를 제외하면 어느 것이나 산문체로 구성되어 있다. 서도부는 제1절이 산문체인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10절은 거의 운문체로 이루어져 있고, 동도부는 제1·2·3·8·9절이 산문체이고 제4·5·6·7절이 운문체이다. 서도부는 형상묘사가 위주이고 동도부는 논박이 위주이기 때문에 句法에 있어 서도부는 운문 위주이고, 동도부는 서도부에 비해 산문체가 많이 섞여있다.

글자수는 3·4·6음을 비롯하여 10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4음이 주류를 이룬다. 또 對句를 많이 사용한 점도 <양도부> 구법에서 두드러진 현상이다. 먼저 운문체의 대표적인 예로 서도부 제10절의 일부를 들어본다.

前乘秦嶺，後越九峻，東薄河華，西涉岐雍⁶⁾ 宮館所歷，百有餘區。行所朝夕，儲不改供。禮上下而接山川，究休祐之所用，采遊童之譴謔，第從臣之嘉頌⁷⁾ 于斯之時，都都相望，邑邑相屬。國藉十世之基，家承百年之業。士食舊德之名氏，農服先疇之畝畝，商循族世之所鬻，工用高曾之規矩，榮乎

6)岐雍은 岐山과 雍水. 岐山은 섬서성 岐山縣 동북쪽에 있으며 산의 모양이 기둥과 같다고 하여 天柱山이라고도 함. 雍水는 섬서성 鳳翔縣 서북쪽에 발원함.

7)《漢書》에 「선제는 자못 儒學을 좋아하여 王褒와 張子僞 등이 모두 조칙을 기다리고 황제가 행차하는 궁궐에서 번번이 노래를 지으면 황제가 작품의 등급을 매겨 등급에 따라 비단을 하사하였다」(宣帝頗好儒術，王褒與張子僞等並待詔，所幸宮館，輒爲歌頌，第其高下，以差賜帛也)고 함.

隱隱, 各得其所.

(앞으로는 終南山을 오르고 뒤로는 九嶷山을 넘으며, 동쪽으로는 황하와 화산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岐山과 雍水를 건넌다. 지나는 궁궐과 觀館은 백 여 곳이나 된다. 아침저녁으로 가는 곳은 언제나 음식이 비축되어 있어서 달리 공급하지 않는다. 하늘과 땅에 예를 올리고 이어서 산천에도 제사를 지내며, 복록에 소용되는 바를 힘써 기원하고 노는 아동들의 시끄러운 노래를 채집하고 따르는 신하들의 예찬하는 노래를 등급 매긴다. 이때에 큰 도시가 서로 바라보고 작은 읍이 서로 이어졌다. 제후의 나라는 십대의 기틀을 닦고 대부의 집은 백년의 공업을 잇는다. 선비는 선대의 공덕에 따른 작위를 받고 농부는 선조의 전답에서 일하고 상인은 가족세대가 팔던 일을 따르고 장인은 고조와 증조의 자를 사용한다. 각 직분이 명확하고도 성대하여 각기 제자리를 얻는다.)

여기서 23구 가운데 4언구가 14구로써 전체의 절반 이상이 4언구로 이루어져 있다. 또 「前乘秦嶺」과 「後越九嶷」, 「東薄河華」와 「西涉岐雍」, 「采遊童之謹謠」와 「第從臣之嘉頌」, 「都都相望」과 「邑邑相屬」, 「國藉十世之基」와 「家承百年之業」 등이 單句對를 이루고 있으며, 「士食舊德之名氏, 農服先疇之畎畝, 商循族世之所嚮, 工用高曾之規矩」은 長對(連珠對)를 이루고 있다. 다음은 산문체의 대표적인 예로 동도부 제8절을 들어보자.

今論者但知誦虞夏之書, 詠殷周之詩, 講教文之易, 論孔氏之春秋, 罕能精古今之清濁, 究漢德之所由. 唯子頗識舊典, 又徒馳騁乎末流. 溫故知新已難, 而知德者鮮矣. 且夫僻界西戎, 險阻四塞, 脩其防禦, 孰與處乎土中, 平夷洞達, 萬方輻瀆? 秦嶺九嶷, 涇渭之川, 曷若四瀆五嶽, 帶河沂洛, 圖書之淵?

(지금의 논자들은 다만 虞夏 때의 <尚書>를 송독하고 殷周 때의 <詩經>을 읊으며 伏羲氏·文王이 서술한 <易經>을 강론하고 孔子가 지은 <春秋>를 논할 뿐 고금의 역사변천에 능히 통달하고 漢德의 유래를 탐구하는 사람이 드물다. 지금 그대는 전대의 典章制度를 상당히 잘 알지만, 또한 말류의 사치로 치달릴 뿐이다. 옛 것을 익혀 세 것을 아는 일도 어려운 뿐만 아니라 지금의 덕을 아는 것도 적다. 또한 서도의 지세는 편벽되고 서쪽 오랑캐와 인접해 있으며 험악하고 사방이 막혀 있어 이것으로 방어망을 구축하는데, 하지만 어찌 대지의 중심에 위치하고 평탄하며 사방팔방으로 터여 있고 각국의 제후들이 수

레바퀴살이 바퀴통에 모이듯하는 동도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서도는 秦嶺과 九嶷山の 형준함이 있고 涇水와 渭水의 에워싸이 있지만 어찌 사대강이 관통하고 五嶽이 솟아 있으며 황하를 끼고 洛水를 거슬러 올라가다가 河圖와 洛書의 상서로움을 얻을 수 있는 동도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총 37구 가운데 16구가 4언구로 구성되어 사언구가 많이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는 虛詞와 雜言句가 섞여있는 산문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誦虞夏之書, 詠殷周之詩, 講義文之易, 論孔氏之春秋」는 長對, 「精古今之清濁」과 「究漢德之所由」는 單句對로 구성되어 산문체 속에 대구의 정밀함도 갖추고 있다.

또 동도부 제10절의 시 다섯 首 가운데 明堂詩·辟雍詩·靈臺詩는 모두 완성한 4言 12구로써 <시경>의 대표적 구형을 수용했고, 寶鼎詩와 白雉詩는 모두 중간에 「兮」字가 끼인 7言 6句로써 <楚辭>의 九歌型을 습용했다.

Ⅲ. <兩都賦>의 表現技巧

1. 比喻

비유를 구성하는 요소는 本體, 喻體, 比喻詞 등 세 가지이며, 세 가지 요소의 유무에 따라 直喻, 隱喻, 借喻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양도부>는 다양한 비유법 가운데 직유과 은유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1) 直喻

직유는 「若」, 「如」, 「似」, 등의 비유사를 사용하여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비유관계를 명확히 나타내는 비유법이다. <양도부>에 나타난 직유를 비유사의 종류에 따라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A) 비유사 「若」을 쓴 경우

① 煥若列宿，紫宮是環(환하기가 마치 못별들이 늘어선 같고 자미궁(紫微宮)을 빙 둘러싸고 있다)

② 舍樞樞而卻倚，若顛墜而復稽(끌어당겼던 난간을 놓고 물러나 의지하여 마치 거꾸로 떨어지다가 다시 머무는 것 같다)

③ 排飛闥而上出，若遊目於天表，似無依而洋洋(날뚫한 문을 밀고 위로 나오면 마치 하늘밖에 눈을 노니는 것 같고 마치 의지할 데 없이 뚱뚱 떠다니는 것 같다)

④ 蘭葩發色，擘擘猶猶，若攜錦布繡，爛爛乎其陂(난초와 어수리가 윤택한 색깔을 발하여 무성하고도 아름다워서 마치 비단을 펼친 듯 수를 놓은 듯하고 그 틈에 찬란히 빛난다)

⑤ 稽帝文，赫然發憤，應若興雲(皇文의 정신을 고찰하여 우뚝 분발하니, 거기에 응하는 자가 구름을 일으킨 듯 많다)

B) 비유사 「如」를 쓴 경우

⑥ 英俊之域，絳冕所興，冠蓋如雲(영웅호걸이 배출된 지역이며 고관 대작이 흥기한 곳으로 고관과 수래의 왕래가 구름처럼 빈번하다)

⑦ 精曜華燭，俯仰如神(달빛처럼 밝고 촛불처럼 화려하며 굽어보고 올려보는 것이 마치 신과 같다)

⑧ 四海之內，學校如林(은 세상에 학교가 숲처럼 많다)

C) 비유사 「似」를 쓴 경우

⑨ 左牽牛而右織女，似雲漢之無涯(못속에 좌측은 견우의 石人이요, 우측은 직녀의 石人이며 물은 끝도 없는 은하수와 같다)

① 排飛躍而上出, 若遊目於天表, 似無依而洋洋(날듯한 문을 밀고 위로 나오면 마치 하늘밖에 눈을 노니는 것 같고 마치 의지할 데 없이 동동 떠다니는 것 같다)

2) 隱喻

隱喻는 본체와 유체가 드러나지만 비유사는 사용하지 않는 비유법으로, 본체와 유체의 상호 관계에 따라 修飾飾 隱喻, 同位式 隱喻, 判斷式 隱喻, 類比式 隱喻 등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⁸⁾ 이들 가운데 <양도부>는 수식식 은유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것은 비유사는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말로 번역할 때 「... 같은(같이)」, 「... 처럼」, 「... 듯이」 등의 비유사를 붙여서 번역되는 것이다. 수식식 은유는 다시 유체가 定語(관형어)로 작용하는 경우와 유체가 狀語(부사어)로 작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양도부>에 나타난 수식식 은유를 유체가 작용하는 방법에 따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A) 喻體가 定語로 작용하는 경우

① 建金城而萬雉, 呀周池而成淵(쇠같이 견고한 성을 세우니 그 규모가 萬雉나 되고, 성 주위에 해자를 파니 그 규모가 연못을 이룰 정도였다)

② 因瓊材而究奇, 抗應龍之虹梁(진귀한 재료로 인하여 기이함을 다 궁구하였고, 형체가 나르는 용과 같고 무지개같은 대들보가 우뚝 솟아 있다)

③ 緣以周墻, 四百餘里, 離宮別館, 三十六所, 神池靈沼, 往往而在(빙투른 담장으로 둘러싸서 백여 리나 뻗어 있으며 떨어진 궁전과 별도의 館소가 36곳이나 되며, 신같은 호수와 신령같은 늪이 도처에 있다)

8) 周翔聖, <古文辭格例解>, 江西高校出版社, 南昌, 1994.12: PP.12-15 참조.

④ 風毛雨血, 灑野蔽天(바람 같은 털과 비 같은 피가 들에 뿌려지고 하늘을 가린다)

위에서 「金城」, 「虹梁」, 「神池靈沼」, 「風毛雨血」 등은 모두 명사로 배열되어 있지만, 앞의 명사(金, 虹, 神, 靈, 風, 雨)는 뒤의 명사(城, 梁, 池, 沼, 毛, 血)를 수식한다. 뒤의 명사는 앞의 명사의 특성(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유사 관계에 있다. 이를테면 성(城)과 쇠(金)는 모두 견고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자는 유사 관계에 있고, 대들보(梁)와 무지개(虹)는 모두 타원형이므로 양자는 유사 관계에 있다. 각 유체와 본체 사이에 공통점을 들어 유사 관계를 도식하면 다음과 같다.

喻體	共通點	本體
金	견고성	城
虹	타원형	梁
神靈	기묘함	池沼
風	가볍고 날린다	毛
雨	많은 액체	血

앞의 명사(유체)와 뒤의 명사(본체)는 공통점을 근거로 서로 유사 관계에 있다. 즉 ‘如’ ‘若’ 따위가 생략된 비유 구조이다. 여기에 작가는 유체와 본체만 전후로 수식 배열함으로써 은유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B) 喻體가 狀語로 작용하는 경우

⑤ 周以龍興, 秦以虎視, 及至大漢受命而都之也(周나라가 용처럼 일어났고 秦나라가 호랑이처럼 웅시하다가 위대한 漢나라가 천명을 받기에 이르러 거기에 도읍하였다)

⑥ 提封五萬, 疆場綺分. 溝塍刻鏤, 原隰龍麟(총 5만顷에 달하며 전답의 경계가 비단 문양처럼 분명하다. 도랑과 밭두둑은 칼로 아로새긴 것처럼 뚜렷하고 평원과 습지는 용비늘처럼 연결되어 있다)

⑦ 周廬千列, 徹道綺錯(사방의 廬舍가 천 갈래로 설치되어 있고 순찰길이 비단같이 이리저리 뻗어있다)

⑧ 列卒周匝, 星羅雲布(늘어선 병졸이 사방으로 둘러싸서 별처럼 벌리고 구름처럼 퍼진다)

⑨ 六師發逐, 百獸駭輝. 震震爍爍, 雷奔電激(六師가 짐승 쫓기를 시작하니 못 짐승이 놀란다. 우르릉 광광 번쩍번쩍 뇌성처럼 달려가고 번개처럼 부딪친다)

⑩ 鳥則玄鶴白鷺, 黃鸝鳩鷓, 鷓鴣鴉鵲, 鳧鷖鴻雁, 朝發河海, 夕宿江漢, 沈浮往來, 雲集霧散(그 곳의 새는 검은 학·백로·백조·푸른 백로·황새·재두루미·너새·역새·물오리·갈매기·큰 기러기·작은 기러기 등이 아침에 황하의 해안에서 출발하여 저녁에 江水와 漢水에서 잠자고 잠겼다가 물위로 뜨고 갔다가 오며, 구름처럼 모였다가 안개처럼 흩어진다)

위에서 「龍興」, 「虎視」, 「綺分」, 「刻鏤」, 「綺錯」, 「星羅」, 「雲布」, 「雷奔」, 「電激」, 「雲集」, 「霧散」 등은 모두 앞의 글자가 뒤의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성 수식 구조로 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앞의 글자는 뒤의 글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유사 관계에 있다. 이를테면 周나라와 용은 모두 기세가 등등하게 일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사 관계에 있고, 秦나라와 호랑이(虎)는 모두 살벌하게 응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자는 유사 관계에 있다. 이런 식으로 각 유체와 본체 사이의 공통점을 들어 유사 관계를 도식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喻體	共通點	本體
龍(용)	興(기세 동등하게 일어남)	周(주나라)
虎(호랑이)	視(살벌하게 응시함)	秦(진나라)
綺(비단 문양)	分(뚜렷이 나누어짐)	疆場(경계)
刻(칼로 새김)	鑿(선명히 구분됨)	溝塍(도랑과 밭두둑)
綺(비단 문양)	錯(이리저리 뻗어있음)	微道(순찰길)
星雲(별과 구름)	羅布(벌리고 퍼져 있음)	卒(병졸)
雷電(뇌성과 번개)	奔激(빠르고 부딪침)	六師百獸(군사와 짐승)
雲霧(구름과 안개)	集散(모이고 흩어짐)	鳥(여러 종류의 새)

이 도표로 볼 때, 위의 예문들에서 앞의 글자(龍, 虎, 綺, 刻, 綺, 星, 雲, 雷, 電, 雲, 霧)는 유체, 뒤의 동사(興, 視, 分, 鑿, 錯, 羅, 布, 奔, 激, 集, 散)는 공통점이며, 유체가 공통점을 수식하고 있다. 즉 유체와 본체 사이에 비유사를 사용하지 않고 비유 관계를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하면 비유사가 생략된 은유 구조라고 할 수 있다.

2. 誇張

誇張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징이나 본질을 실제보다 보태거나 줄여서 묘사함으로써 작자가 느낀 形象을 독자에게 여실히 전달하는 수단이다. 부라는 문체는 鋪陳의 속성이 있으며, 漢賦는 변화한 都城과 풍부한 물산 및 성대한 사냥 장면 등에 대하여 장황히 묘사함으로써 漢 제국의 위엄과 태평성세를 자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과장의 기교가 채용될 가능성이 많다. 더구나 <양도부>는 서도 長安과 동도 洛陽의 都城·宮殿·物産·사냥 장면 등에 대하여 경쟁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의 기교가 많이 보인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決渠降雨, 荷插成雲(도랑을 터서 물을 대니 전답에 비가 내리는 듯하고 가래를 매고 전답에 이르는 사람이 구름을 이룬다)

② 殊方異類, 至于三萬里(낯선 땅과 기이한 돌산이 삼만 리나 뻗어 있다)

③ 周廡千列, 徹道綺錯(사방의 廡소가 천 갈래로 설치되어 있고 순찰길이 이리저리 뻗어 있다)

④ 雖輕迅與儻狡, 猶愕胎而不能階. 攀井幹而未半, 且胸轉而意迷. 舍楹檻而卻倚, 若顛蹙而復稽. 魂怳怳以失度, 巡迴逾而下低. 既憊懼於登望, 降周流以彷徨. 步雨道以縈紆, 又杳窳而不見陽(비록 날래고 용맹한 자라도 오하려 놀라 바라보면서 오를 수 없다. 그 곳의 정간루(井幹樓)를 오르다가 반도 못미처 눈이 현란하고 정신이 어지러워진다. 끌어당겼던 난간을 놓고 물러나 의지하여 마치 거꾸로 떨어지다가 다시 머무는 것 같다. 정신이 멍하여 제정신을 잃고 오던 길을 따라 낮은 곳으로 내려오고 만다. 올라가 바라보다가 이미 겁을 집어먹고 내려와 사방을 돌아다니며 배회한다. 구불구불한 용도(雨道)를 걸어가면 아득하고 깊어서 햇빛이 보이지 않는다)

⑤ 毛羣內闔, 飛羽上覆. 接翼側足, 集禁林而屯聚(둘짐승의 무리가 경기지방내에 가득차며 날짐승의 깃털이 하늘을 덮고, 날짐승의 날개죽지를 잇고 둘짐승의 발을 연이을 정도로 황제의 원유(苑囿)에 모으니 무리지어 모인다)

⑥ 超洞壑, 越峻崖, 蹶巖巖, 鉅石隕, 松柏仆, 叢林摧. 草木無餘, 禽獸殄夷(깊은 계곡을 넘고 험준한 벼랑을 뛰어넘으며 가파른 바위를 무너뜨리니 거대한 돌이 무너지고 소나무와 잣나무가 엎어지고 떨기솔이 꺾여진다. 초목은 하나 남지 않고 새와 짐승이 모두 없어진다)

⑦ 焱焱炎炎, 揚光飛文, 吐燭生風, 欲野歎山, 日月爲之奪明, 丘陵爲之搖震(불꽃처럼 불빛처럼 빛을 날리고 문채를 날리어 불꽃을 토하고 바람을 일으키듯 돌을 집어삼키고 산을 불어버릴 기세이다. 해와 달이 그로 인해 빛을 잃고 구름이 그로 인해 진동한다)

여기서 ①은 모인 사람이 많은 정도를 과장한 것이고, ② ③은 각각 「三萬」, 「千」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로 과장한 경우이고, ④는 누각에 오르는 사

람의 반응을 과장하여 표현하여 누각의 높음을 효과적으로 묘사하였고, ⑤는 실제보다 보태어 표현함으로써 날짐승의 많음을 묘사하였고, ⑥은 사냥의 결렬함을 묘사하기 위해 사냥후 초목·새·짐승의 상황을 과장했고, ⑦은 사냥에서 전차와 기병의 기세가를 생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과장한 경우이다.

3. 借代

借代는 사물간의 상관성을 이용하여 한 사물을 다른 사물을 빌려서 지칭하는 표현 방법이다.⁹⁾ 우리 나라 수사법으로 말하면 提喻(synesdoche)와 換喻(metonymy)를 합친 것에 해당한다. 제유는 부분으로 전체를, 특수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으며, 환유는 추상적인 것으로서 구체적인 것을, 또는 구체적인 것으로서 추상적인 것을, 원인으로써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¹⁰⁾ 따라서 여기서는 제유와 환유로 나누어 <양도부>의 借代를 분석하겠다.

A) 提喻

① 英俊之城，^{○○} 絃冕所興，^{○○} 冠蓋如雲(영웅호걸이 배출된 지역이며 고관 대작이 흥기한 곳으로 고관과 수레의 양래가 구름처럼 빈번하다)

② 樹中天之華闕，^{○○} 豐冠山之朱堂(하늘 가운데 화려한 궁궐을 세우고 산을 씌운 未央宮殿을 풍요로이 세웠다)

③ 逾超大河，^{○○} 跨北嶽，立號高邑，^{○○} 建都河洛(마침내 황하를 넘고 북악 恒山을 점거하여 高邑에서 尊號를 세우고 洛陽에서 도읍을 세웠다)

9) 周翔聖, 앞의 책; P.54 「借代就是利用事物間的相關性作示意體, 借一事物稱謂來對稱另一事物的一種修辭格。」

10) 金相善, <文章修辭學>, 一潮閣, 서울, 1992.1; 重版 pp.217-218

○○
④ 順時節而蒐狩(계절에 맞춰 봄에는 蒐 사냥을 하고 겨울에는 狩 사냥을 하면서 계절에 알맞는 사냥을 하며)

①의 '紱冕'은 고관대작의 인끈과 관인데 부분으로써 고관대작을 가리키며, '冠'은 본래 고관들이 쓰는 관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쓰는 고관을 지칭하고, '蓋'는 수레의 일부분인 덮개인데 수레 전체를 지칭한다. ②의 '朱堂'은 본래 殿堂의 창문 등의 설비가 모두 붉은 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¹¹⁾ 여기서는 未央宮殿의 부분적인 요소로 미양궁전 전체를 가리킨다. ③의 '河洛'은 黃河와 洛水로써 洛陽 도읍 전체를 가리킨다. ④의 '蒐狩'는 각각 봄 사냥과 겨울 사냥을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서의 내용은 여름의 苗 사냥과 가을의 獮 사냥¹²⁾까지 포함해서 계절에 따라 알맞은 사냥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므로 봄·여름·가을·겨울의 사냥 전체를 가리킨다. 이것은 마치 春秋로 사계절 전체를 지칭하는 방법과 같다.

B) 換喻

○○
⑤ 七相五公, 與乎州郡之豪傑, 五都之貨殖, 三選七選, 充奉陵邑(일곱 재상과 다섯 조정 중신, 그리고 州郡에 있는 호걸, 五都의 대상인이 3등급으로 선발되어 일곱 陵廟로 옮겨와 농묘를 받드는 일에 충당한다)

○○○○
⑥ 虎賁贅衣, 闔尹闔寺(날랜 무사와 복식을 관장하는 관리, 환관의 우두머리와 문지기 환관)

○○
⑦ 蓋以強幹弱枝, 隆上都而觀萬國也(이는 대개 근간을 강하게 하고 가지를 약화시키며 도읍을 융성히 하여 만 천하에 보이고자 함이다)

11) 田兆民, <歷代名賦譯釋>, 黑龍江人民出版社, 哈爾濱, 1995.6: P.259 '朱堂, 殿堂의 門窓等設備都塗紅色, 故名. 此指未央宮殿.'

12) <左傳·隱公五年>에 "봄에는 새끼를 배지 않은 짐승만 골라 잡는 蒐 사냥을 하고, 여름에는 곡물의 싹을 해치는 것을 잡는 苗 사냥을 하며, 가을에는 군사 훈련을 겸해서 짐승을 죽이는 獮 사냥을 하고, 겨울에는 짐승을 에워싸서 마구 잡는 狩 사냥을 한다"(春蒐, 夏苗, 秋獮, 冬狩)고 함.

⑧ 其陽則崇山隱天，幽林穹谷(그 남쪽에는 崇山이 하늘을 가리고 수풀이 짙어지고 계곡이 깊으며)

⑨ 其陰則冠以九嶷，陪以甘泉(장안의 북쪽은 九嶷山으로써 관을 삼고 甘泉山을 동반하고 있는데)

⑩ 陸海珍藏，藍田美玉(關中 일대에는 진귀한 보옥이 감춰져 있고 藍田에는 아름다운 옥이 난다)

⑪ 又有承明金馬，著作之庭，大雅宏達，於茲爲羣(또한 承明廡와 金馬門은 저술·待詔하는 신하들이 머무는 곳이며, 인격이 높은 신하와 두루 막직한 신하들이 여기에서 무리를 이룬다)

⑫ 更造夫婦，盛有父子，君臣初建，人倫寔始(은 세상에 부부간의 윤리를 다시 세우고 처음 부자의 윤리가 있게 되고 군신간의 의리가 처음으로 세워지고 인륜이 이로써 시작되었다)

위에서 ⑤는 '貨殖'은 '재물을 불린다'는 뜻인데 상인의 속성으로 상인을 지칭했다.¹³⁾ ⑥의 '虎賁'은 '날래다'는 뜻인데 그 특징으로써 황제를 호위하는 무사를 지칭하고 있으며, '贅衣'는 '옷을 잇다'는 뜻인데 또한 그 특징으로써 황제의 복식을 담당하는 관원을 지칭한다. ⑦의 '幹'은 '근간'으로써 황제와 중앙왕실의 권력을 상징하며, '枝'는 '줄기'로써 세후와 지방 호족 세력을 상징한다. ⑧의 '陽'과 ⑨의 '陰'은 원래 각각 '햇빛'과 '그늘'의 뜻이지만 여기서는 그 성질로써 각각 도성의 남쪽과 북쪽을 지칭한다. ⑩의 '陸海'는 '물산이 풍부한 고원'을 뜻하는 일반적인 명칭인데 여기서는 특정한 지역인 關中 일대를 지칭한다.¹⁴⁾ ⑪의 '大雅'는 본래 <

13) <史記> 卷129에 각 지방의 산업 경제와 이름난 상인을 다룬 <貨殖列傳>이 있음.

14) <漢書·東方朔傳>에 "漢이 일어나자 …… 涇水·渭水 남쪽에 도읍했는데, 이를 천하의 물산이 풍요로운 땅이라 한다"(漢興 …… 都涇渭之南，此所謂天

詩經·大雅>를 말하는 것이나 여기서는 <詩經·大雅>에서 기리는 훌륭한 재능을 지닌 인격의 소유자를 지칭하고, '宏達'은 '두루 통달함'의 뜻이나 여기서는 두루 통달한 신하를 지칭하므로¹⁵⁾ '大雅宏達'은 추상적인 것으로 구체적인 것을 나타낸 것이다. 19의 '夫婦' '父子' '君臣' 등은 각각 부부간의 윤리, 부자간의 윤리, 군신간의 윤리 등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것으로 추상적인 것을 나타낸 것이다.

IV. 結語

班固는 정통 유가이다. 도가의 무위사상과 낭만주의를 배격한 유가의 사상가이며, 典雅한 <漢書>를 엮은 유가의 역사가이다. 문학가로서도 이러한 경향은 여실히 드러난다. <離騷序>에서 屈原이 신하된 자로서 '怨'의 발로가 지나쳤다고 그 인물됨을 비평한 점이나 <離騷>의 내용이 六經에 위배된다고 비평한 점 등은 그의 문학관이 유가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말해준다. 漢代의 대표 문학 장르인 賦의 의의에 대해서도 「어떤 것은 신하의 심정을 드러내어 풍유의 뜻을 통하였고, 어떤 것은 임금의 덕을 선양하여 충효의 뜻을 다했는데, 온화하고 융합하며 끌고 선양하여 후세에 드러나니 또한 <시경>의 아송(雅頌)에 버금가는 것이리라,¹⁶⁾라고 하여 한부의 문학적 가치를 <시경>의 諷諫 작용과 教化 작용과 연결시켜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학관에 따라 <양도부>는 西都賓의 사치 의식에 대하여 東都主人이 禮樂 思想과 節儉 의식으로써 비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下陸海之地라고 하고, 注에 “높고 평명한 것을 陸이라 하는데, 關中은 지대가 높으니 陸이라 한다. 海라는 것은 만물이 나오는 곳인데, 關中의 산천은 물산이 풍부하니 이로써 陸海라고 한다”(高平曰陸, 關中地高故稱陸耳. 海者, 萬物所出, 言關中山川物産饒富, 是以謂之陸海也)라고 함.

15) <文選> 李善注에 “大雅는 훌륭한 재능을 지닌 사람을 말한다. <詩經>에 <大雅>가 있으므로 그것을 들어 지칭한 것이다. <漢書>에서 ‘武帝가 司馬相如의 무리는 모두 명석한 지혜로 두루 통달하였다’라고 했다.”(大雅, 謂有大雅之材者. 詩有大雅, 故以立稱焉. <漢書>, 武帝曰‘司馬相如之倫, 皆辨智閑達.’)고 함.

16) <兩都賦序>: 「或以抒下情而通諷諭, 或以宣上德而盡忠孝, 雍容揄揚, 著於後嗣, 抑亦雅頌之亞也」

있다.

진정 한부의 문학적 가치가 풍간 작용과 교화 작용에 있었던가? 당시 문학이 학술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 功用性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던 시대에는 문학의 그러한 작용에 주목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마상여의 화려한 부에서 풍간 작용을 느끼기 힘들고, 반고의 부에서조차 교화 작용은 미미한 것이 아닌가. 아이러니칼하게도 후대의 문학가는 반고가 주목하지 않았던 면에서 作賦의 문학적 의의를 자각하게 된다. 사마상여 이후 六朝에 이르기까지 부가 주로 형식적 방향으로 발전한 사실이 그것을 웅변한다. 다시 말하면 부의 공용성을 추구하는 데에 한계를 깨닫고 형식적인 아름다움에서 순수문학적 의의를 발견한 것이다.

본고에서도 <양도부>의 형식적 아름다움을 밝히는 데 역점을 두어 작품의 체제와 표현기교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체제의 긴밀한 구성, 한자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표현의 아름다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작품의 창의성이 문제가 되는데, <양도부>는 가공적인 인물을 등장시켜 문장을 전개한 점이나 鋪陳 방식 등에 있어 司馬相如의 <上林賦>와 <子虛賦>를 모방한 흔적이 없지 않다. 그러나 사마상여의 부는 <문선>에서 따로 나누어 별개의 두 작품으로 간주한 반면, <양도부>는 동일한 제목 아래 수록한 점이나 편폭에서도 사마상여의 두 부를 합친 것보다 많은 것을 보면¹⁷⁾ 반고의 창의성이 상당히 발휘된 작품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李善注, <文選>

五臣注, <文選>

<昭明文選譯注>, 吉林文史出版社, 長春, 1994.11

張啓成 徐達 等 譯注, <文選全譯>, 貴州人民出版社, 貴陽, 1994

遲文浚·許志剛·宋緒連, <歷代賦辭典>, 遼寧人民出版社, 沈陽, 1995.4

田兆民, <歷代名賦譯釋>, 黑龍江人民出版社, 哈爾濱, 1995.6

17) 글자수에 있어 사마상여의 <子虛賦>와 <上林賦>는 모두 합쳐 3523자, <兩都賦>는 4702자임. 姜書閣, <漢賦通義>, 齊魯書社, 濟南, 1989.10; p.195 참조.

- 班固 編 顏師古 注, <漢書>, 中華書局, 北京, 1987.12
范曄 編 李賢 等注, <後漢書>, 中華書局, 北京, 1987.10
張正體·張婷婷, <賦學>, 學生書局, 臺北, 1982.8
姜書閣, <漢賦通義>, 齊魯書社, 濟南, 1989.10
譚永祥, <漢語修辭美學>, 北京語言學院出版社, 北京, 1992.12
金相善, <文章修辭學>, 一潮閣, 서울, 1992.1; 再版
周翔聖, <古文辭格例解>, 江西高校出版社, 南昌, 1994.12